‘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추진

군산시, 새만금 국가산단 내 첨단전략산업 성장 거점 조성
사업비 320억 투입, 소부장·소규모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

군산시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새만금 기업성장센터’(이하 ‘센터’)를 건립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차전지 등 앵커기업(특정 지역이나 산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입주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20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규모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공구에 지상 3층으로 조성되며, 완공 후에는 임대형 생산공간과 근로자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적인 공간 역할을 하게 된다. 동시에 입주기업의 생활 여건을 높여줄 복합 편의시설도 함께 운영될 계획이다.

시는 센터가 특히 혁신 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및 소규모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인프라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건립 필요성, 기업 수요조사, 유치업종 선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난 4일에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되었다.

시는 일단 올해 국비 4억9,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후 추경예산을 통해 지방비를 확보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특히 올해 안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센터가 조성되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과 연계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에 다양한 신산업 기업이 집적되면서 지역 산업 생태계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주민 목소리에 답하다… 민생 개선 ‘속도’

‘2025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보고회’ …접수된 363건 추진 박차

익산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보고회’를 열고,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의 처리계획을 부서별로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8일간 15개 읍면을 돌며 시민과 직접 소통한 주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363건의 건의사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건의 내용은 주거, 교통, 농업, 환경 등 주민생활 전반에 걸쳐 있으며, 바로 해결 가능한 20여 건은 이미 처리됐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주요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북부권 주민들이 건의한 ‘어울림파크골프장 인조잔디 정비사업’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기존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객의 불편이 컸던 점을 반영해 인조잔디 보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낭산면에서 제안된 버스승강장 설치 요청은 접근성이 부족했던 농촌마을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로, 설치 후보지를 검토한 후 상반기 내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망성면 신풍마을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함열읍과 금마면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는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 △안전 폐쇄회로(CC)TV 설치 △운동기구 확충 △농배수로 준설 등 주민밀착형 생활개선 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현장에서 들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곧 시정의 나침반” 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주요 사업 현장 점검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17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안전총괄과, 하수과, 자원순환과의 주요 사업 현장과 운영 중인 시설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앞서 진행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을 확인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과 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함으로써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건설위원회는 먼저, 안전총괄과에서 추진 중인 창성지구 및 송풍7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단순

한 건물 철거를 통한 급경사지 해소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기철 이전까지 미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사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군산공공하수처리장 및 군산폐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에 대해서는 하수도 기본계획 및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약품 등 소모품의 경우 관내 생산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산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압축베일 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야경·자연·국가유산까지 ‘꽉 찬’ 익산 여행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과 연계한 열차 관광 운영 ‘큰 호응’

익산시가 아름다운 백제왕도 야경과 자연, 국가유산의 매력을 철도 여행객들에게 선보인다.

익산시는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세만)과 협력해 기획한 ‘2025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 기차여행’을 지난 18일 시작했다.

이번 여행은 ‘2025년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과 근대문화유산을 연계한 기획 상품으로 1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서울과 수도권에서 출발한 일반·자전거 관광객 총 210명이 에코레일 열차를 타고 익산을 찾았다.

일반 관광객은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개별 자유식을 즐기며 지역 상권을 체험하고 직접 소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춘포역과 보석박물관 등 익산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자전거 관광객은 익산역에서 남부시장까지 자전거로 이동해 점심을 먹고 △만경강 △달빛소리수목원 △무왕릉 등 자연과 국가유산을 따라 달리며 익산만의 풍경에 빠져들었다.

일반·자전거 관광객 모두 밤에는 이번 여행의 백미인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에 참여해 너른 백제왕궁을 가득 채운 다채로운 경관 조명과 체험, 공연, 전시를 즐겼다.

2일 차 여행인 19일에는 교도소세트장과 금강자전거길 등 익산의 명소를 방문한 후 기차를 타고 귀가했다.

익산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5월에는 2025 서동축제와 연계한 기차 상품도 마련돼 있다”며 “익산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확장해 1,000만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익산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여행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동산 우남아파트 주변 환경 개선 위한 간담회

아파트 옆 농배수로 U자관 설치로 악취 등 개선 전망

동산동 우남아파트 옆 농배수로 U자관 설치 공사 실시로 악취 및 해충 발생 등 아파트 주변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동산, 영등1)은 간담회를 통해 우남아파트 입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공사 진행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재구 의원 뿐만 아니라 동산 우남아파트 관리소장과 아파트 자치회 임원, 익산시 관계자, 동산동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남아파트 관리소장과 자치회 임원들은 “논과 인접한 아파트 옆 농배수로에 늘 물이 고여 있어 매년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해 창문을 열기가 어렵다”며 주거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에 유 의원은 “현재 농배수로 U자관 설치 공사 예산이 부족해 전체 270m 중 80m만 우선 실시한 상황”이라며, “입주민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나머지 공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우남아파트 입주민들과 소통하며 유재구 의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U자관 설치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우남아파트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익산시와 시의회가 서로 소통해 문제 해결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농배수로 U자관 설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두근두근 인연만들기’ 참가자 30명 모집

군산시가 21일부터 5월 9일까지 제3기 두근두근 인연만들기 ‘청춘, 섬愛있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진행된 1~2기 두근두근 인연만들기 ‘청춘, 섬愛있다’를 잇는 세 번째 만남 프로젝트이다.

1~2기 행사는 작년 6월, 10월에 진행되어 높은 인기를 얻었으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청춘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 기회를 제공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올해도 청춘남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 제3기 ‘청춘, 섬愛있다’는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에서 1:1 스피드데이팅, 포토미션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마음에 드는 이성을 1~3지망으로 작성한 뒤 막을 내린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커플로 연결된 남녀 대상자는 추후 통보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군산 시민 또는 군산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27세~39세(1986년생~1998년생) 미혼남녀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시정소식란을 확인하거나 인구대응담당관(☎063-454-2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갑오징어 산란 서식장 시설물 조성 박차

군산시가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 2년 차 사업의 자원 증대를 위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조성을 본격화한다.

시는 갑오징어 은신처 및 알 산란장 제공을 목적으로 산란시설물 600개를 비안도와 방축도 해역에 각각 300개씩 설치했다.

또한 산란 시기인 5월 초에는 적정 수온에 맞추어 북쪽의 연도 해역에 갑오징어 통발 30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사업 비용은 5년간 총 40억 원으로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올해는 산란장과 인공 해조장 조성, 자연석 시설 등이 추진되며, 사업비는 총 8억 원이다. 이외에도 방축도 어촌계에 인공 해조장 10개소를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